

김수미, 영원한 '별'이 되다

어제 발인...MBC 공채 탤런트로 연기 시작 영화·예능 등 종합무진



'일용 염니', '육쟁이 할머니'로 사랑받으며 50년 넘게 문화예술계를 중흥시킨 고(故) 김수미(본명 김영옥) 배우가 27일 발인을 끝으로 영원한 '별'이 됐다. 향년 75세.

1949년 전북 군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0년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를 시작,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네 역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당시 32세 젊은 나이에 60대 노모 역을 맡아 뛰어난 연기를 펼쳐 MBC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영화 '마파도', '간 큰 가족', '가문의 위기', 드라마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 3' 등에서 특유의 '육쟁이 할머니' 캐릭터로 인기를 누렸다. 걸작한 입담과 친근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개성적인 연기를 선보인 것.

시트콤에도 출연, 코믹 연기를 통해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93년 시트콤 '오박사네 사람들'을 비롯해 SBS '귀엽거나 미치거나', MBN '뱀파이어 아이들' 등에서 본인 이름과 동일한 '김수미' 역을 연기했다. 본명과 배역명이 자주 일치했던 것은 고인의 개성있는 연기가 고유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고인은 일일 연속극 '수선화', '사미 인곡', 법정 드라마 '홍변호사', 대하 드라마 '조선왕조 오백년-추동궁 미마', 미니 시리즈 '그 여자' 등에 출연하며 폭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스페셜 드라마 '황후의 품격', '발리에서 생긴 일', 아침 드라마 '말로만 중산층' 등에서는

주·조연을 넘나들며 열연을 했다. 이후 경력을 살려 송실대 사회교육원 연극영화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요리 실력으로도 고인은 일가견이 있었다. 지난 1982년 TV 프로 '오늘의 요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05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수미 간장계장'을 론칭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예능 프로그램 '수미네 반찬'에서 특유의 손맛을 뽐냈다.

고인은 생전 '김수미의 전라도 음식 이야기', '맘놓고 먹어도 살 안 쪼오' 등 요리 관련 저서도 펴냈다. 이와 함께 1990년 장편소설 '너를 보면 살고 싶다', 이듬해 에세이집 '그리운 것은 말하지 않겠다', '나는 가끔 도망가 버리고 싶다'를 발간하는 등 작가로서도 활동을

펼쳤다.

김수미의 아들 정명호(나팔꽃F&B) 이사는 지난 26일 빈소에서 "어머니께서 워낙 글 쓰는 걸 좋아하시는데, 집에 가서 보니 손으로 써둔 원고들이 꽤 많았다"며 "미리 정해두신 책 제목은 '안녕히 계세요'였다"고 전했다. 원고 속에는 은퇴 후 음식을 매개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후문.

한편 고인은 '맨발의 기쁨이'로 맥스무비·중사대상영화제 여우조연상, '그대를 사랑합니다'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SBS 연기대상 공로상, KBS 연기대상 소소력부문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2018년에는 제8회 대한민국 한류대상 대중문화 특별공로대상을 받기도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영화, 드라마, 예능을 넘나들며 50년 넘게 국민 걸을 지킨 김수미 배우가 지난 25일 오전 별세했다. 배우 김수미 영결식. /연합뉴스

'마왕' 신해철 10주기

삶은 '보너스 게임' 이젠 슬픔 대신 용기 주고파



아내 윤원희 넥스트유나이티드 대표 AI 신해철·현정 공연 프로젝트 진행

"삶이란 '보너스 게임'인 것을 기억하며, 매일의 소중한 시간 속에서 감사를 인지하고 모아가자."

생전 '마왕'으로 불린 가수 신해철(사진)이 세상을 떠난 지 27일로 꼭 10년이 됐다.

1988년 데뷔한 신해철은 밴드 무한계도와 솔로 활동을 거쳐 록밴드 넥스트(N.EX.T)의 리더로 활동하며 '그대에게', '민물장어의 꿈' 등 히트곡을 남겼다. 평소 적극적인 사회적 발언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는 2014년 장 협착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해 세상에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다.

신해철의 아내로 고인과 관련된 IP(지식재산권) 프로젝트를 펼치는 윤원희 넥스트유나이티드 대표는 27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민물장어의 꿈'의 의미로 "(삶을) 행복하고 여행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답했다.

윤 대표는 "뮤지션이자 소셜테이너로서 고인을 그리워하는 팬들께서 정말 많은 응원을 해 줬다"며 "다방면으로 어려운 일들도 종종 발생했지만 한내어 한 발씩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됐다"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다.

또 "남편이 남긴 소중한 IP 권리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서, 그동안 생소했던 음악 저작권에 관해 많은 분의 도움을 받으며 배우고 익힌 시간이었다"며 "미성년인 자녀들의 권리를 대행하는 입장으로서 더 조심스러웠고, 아직도 배우는 중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빠르게 흘러가면서 남편의 또 다른 귀한 작품들이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기쁠 때마다 특특던 그의 목소리가 듣고 싶기도 했다"고 했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올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한 신해철의 목소리 데모 모델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 강연, 공연 등 기록으로 남은 신해철의 음성 자료를 전처리하고, 별개로 모은 음성을 스크립트로 구현해 이를 기반으로 음성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물이었다.

"10년 동안 제가 느낀 것은 저와 아이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두 명의 신해철'을 그리워한 것 같다. 노래하던 신해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든 위로하고 격려하던 신해철이죠. 물론 독실한 신해철도 참 많이 그리워합니다."

'마왕'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했을까 하는 팬들의 글을 보고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윤 대표

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했다.

그는 "(AI 신해철 프로젝트로) 여러 번 청취를 반복하다 문득문득 찾아오는 슬픔은 내게 불가항력이었다"고 말했다.

신해철의 방대한 음성 자료에서 목소리만을 추출해 음성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은 '한땀 한땀 장인정신' 같았단다. 윤 대표는 "수작업 없이는 자연스럽게 되기가 불가능하기에, 들이는 시간과 노고를 단축할 수 있는 '치트키'가 없는 게 아쉬웠다"고 돌아봤다.

"처음에는 AI로 구현된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것만으로도 놀랐어요. 개발 막바지에 이르니 남편 특유의 말투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것 같다는 난관에 봉착했죠."

신해철과 생전 절친했던 방송인 겸 뮤지션 남궁연이 발 벗고 나서 데이터 전처리, 학습, 추출에 힘을 쏟았다. 남궁연은 신해철 특유의 말투를 찾고자 한 문장을 수백개의 버전으로 학습시켰다고 한다. 신병진 방송작가는 신해철이 '사실은', '백분토론', '꽃까방' 등의 프로그램에서 한 말을 1만8000여 페이지 분량의 글로 정리했다. 현재는 이 자료를 상황별, 주제별로 분리해 학습시키는 단계다.

넥스트유나이티드는 신해철 10주기를 맞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전일부터 이틀간 한정 콘서트 '마왕 10th : 고스트 스테이지'도 열었다. 신해철이 생전 활동한 밴드 넥스트를 비롯해 고유진, 홍경민, 김동완, 싸이, 김범수, 넬, 해리빅버튼, 전인권 밴드, 이승환, 국카스텐 등이 힘을 보탰다.

윤 대표는 "10주기를 전환점으로 이제는 추모와 슬픔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모든 노력과 정성이 깃든 음악들이 한 사람이 라도 더 기쁘고 용기를 주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이라며 "한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 않은 동료 가수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흔쾌히 '오케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비전으로 "신해철을 신해철답게 재현하는 것"이라며 "함께해서 행복했고,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신해철이라는 존재의 특별함은 가수과 대중이 아닌 '우리'라는 동질감 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수미 사인 '고혈당 쇼크'...뮤지컬 '친정엄마' 애증의 유작

14년 출연...출연료 미지급 스트레스

갑작스럽게 별세한 배우 김수미의 사인은 '고혈당 쇼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아들인 정명호(나팔꽃 F&B) 이사는 "사인을 조사한 경찰이 '고혈당 쇼크'가 최종 사인이라고 전했다"며 "당뇨 수치가 500mg/dL이 넘게 나왔다"고 지난 25일 밝힌 바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고혈당 쇼크'는 체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해 뇌와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 심각한 탈수와 뇌 손상을 초래하며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수미가 14년간 출연한 뮤지컬 '친정엄마'는 고인에게 적잖은 스트레스 요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명호 이사에 따르면 "모친께서 뮤지컬에 주연



애증의 유작 된 뮤지컬 '친정 엄마' /연합뉴스

공 봉란 역으로 14년간 출연했으나 스트레스가 컸다"며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소송을 준비중

이었다"고 한다.

김수미는 지난 5월까지 한전아트센터에서 상연한 이 작품에 함께했지만, 공연을 마치고 같은 달 31일 피로 누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에 입원한 적 있다.

지난 4월 프레스콜에서 김수미는 "친정엄마"는 '전원일기'와 함께 내가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은 작품이다"며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고인은 2010년 초연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봉란 역으로 무대에 올랐다.

뮤지컬 '친정엄마'는 2007년 초연된 동명 연극의 내용 일부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휩싸이면서 김수미는 지난해부터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